



# 2024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



## 개인적인 성장을 돕는 특강

이름	이아인
전공	사회학과
학번	20240412
참여 프로그램	<input type="checkbox"/> 1-on-1코칭 (담당교수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글말특강 (9회차)

내가 수강한 글말교실 9회차는 '어떻게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.'에 대해 다루었고, 그것은 내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었다.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의 대화가 주변인과 이루어졌기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잘 이루어졌지만, 대학에서의 대부분의 대화 상대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에, 그들과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꽤 있다. 그런 부분에서, 이 글말교실 프로그램은 나에게 꽤 큰 도움을 주었다.

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간결하고 실질적인 조언이었다. 해당 강좌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요소들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졌다. 이런 내용들은 사실 머리로 다 알아도, 실제로 신경쓰며 대화를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. 굉장한 피로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. 나도 학창 시절 학교에서 올바른 말하기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꽤 있지만, 막상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발음이 뭉개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. 그렇다고 말하기 기술을 적용해보자니 되려 생각이 꼬여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, 얼마 안 가 말하기 기술을 포기하게 되었던 기억이 난다. 하지만 해당 강좌에서는 핵심만을 전달하는데, 그것이 오히려 실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기 기술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었다.

말하기 기술 이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다. 바로 '자기 자신 칭찬하기' 이다. 본래는 자신감을 갖고 대화할 때 주눅들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지만, 나는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. 나는 나 자신의 업적을 별로 칭찬하지 않고, 잘한 것은 '운이 따라준 것'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.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탓하며 후회하는 일이 잦아 자신감이 낮아지기도 했다. 하지만 글말교실을 통해 이러한 내 생각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, 내가 나의 좋은 점을 계속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. 그래서 예전보다 나 자신을 자주 칭찬하려 노력했고, 조금씩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. 처음에는 오글거리기도 했지만, 나에게 좋은 점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 나 자신을 더욱 아끼게 되고 행복감이 올라갔다. 또, 이것이 습관화되어 주변인들에게도 사소한 칭찬을 건네게 되기도 했다.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 즐거웠다.

사실 나는 이 글말교실을 교양 과목 교수님의 소개가 없었다면 전혀 몰랐을 것이다. 그래서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, 동시에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 또한,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포스터도 기존의 제목만 쓰여있는 형식이 아니라,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알려주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.

다음 학기에는 특강뿐만 아니라 일대일 코칭도 진행해보고 싶다. 단순히 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,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기쁘다.